

오전(1부, 노량진) 6시  
 주일예배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주일예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5년 9월 7일 (제 1322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걸럼

## 빈집이네

인천에서 주일예배를 드릴 때다. 당회장실로 한 권사님이 들어오시는데, 얼굴이 죽을상이다. “목사님, 몸이 너무 아픕니다. 안수 좀 해주세요.”

나는 바로 “아~ 귀신아, 나가!”라고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내 집인데 왜 나가?”라고 한다. “왜 네 집이야? 이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가~!” 했더니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누가복음 11장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눅11:24~26)는 말씀이 있다.

중병이 들어 금식기도 하며 병 낫기를 원하던 성도가 귀신을 쫓아내고 건강을 찾더니 슬슬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몇 년 지나지 않아 다시 병이 들어 찾아오는 것이 이런 경우다. 사람들은 ‘병이 재발했다’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귀신이 ‘내 집’이라고 다시 들어온 것이다. 귀신은 육체 속에 들어가야 편하다. 오죽하면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귀신이 돼지 떼 속이라도 들어가고자 했을까.

도둑이 빈집을 표적 삼듯 귀신도 빈집을 노린다. 빈집이란 주인이 없는 집을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3:16)라고 밝히 말씀하셨듯, 우리 주인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시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 귀신이 호시탐탐 노리다가 들어와 자기가 주인인 양 마음대로 행세하고, 제 동류인 귀신들을 더 불러들이는 것이다. 도둑이 빈집을 정리하고 조심히 다루겠는가? 부수고 망가뜨려 영망을 만들듯 삶을 난장판으로 만든다.

주인인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뿐이다. 불이 밝으면 감히 어두움이 들어오겠는가. 귀신의 집이 되느냐, 하나님의 전이 되느냐는 온전히 내 신앙에 달렸음을 알자.

# 엘살바도르(EI Salvador) 1차 전도여행

처음 가는 나라입니다.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작은, 인구 약 700만의 태평양 연안 국가입니다. 스페인(Spain)으로부터 독립 후 오랜 내전과 독재, 쿠데타 등을 겪으며 고단한 근현대사를 겪어온 나라입니다.

이번 집회는 과테말라(Guatemala) 출신 왈테르(Walter) 목사가 엘살바도르 교계와 연결하여 우리 목사님을 소개하고 집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엘살바도르 정부와 협의가 진행되어 메인스타디움에서 집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가 이루어지며 자못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Africa), 인도(India) 등에서 해왔던 집회들은 그런 옥석을 가리는 지난한 작업을 거치며 진행되었고, 그 결과 원망 시비 없이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임운석 집사님의 신학교 특강에서 소상하고 생생하게 간증된 바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 일어난 소용돌이는 떨어져 나갈 건 떨어져 나가고 진실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가려 엘살바도르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시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목사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애용하며 부르짖어 엘

그래서 이번 엘살바도르 집회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앞에 어떤 일을 당할는지 모르지만, 담대하게 발을 내딛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랜 세월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며 배운 믿음이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문 기사를 읽으실 때면 이미 엘살바도르 집회에 대한 현장소식을 보고 들으셨을 테니,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엘살바도르에 전대미문의 역사가 있을지이다!

그런데 교회협의회 내에서 불협화음이 일기 시작하고 다툼이 일어나더니 정부도 발을 빼는 형국으로 악화되었지요. 제 3 세계국가에서 대형집회가 계획되면 마치 하이어나처럼 달려드는 복음 장사꾼들이 있거든요. 오로지 돈만 노리는 자들이지요. 오랜 세월 영미 선진국 주도로 제 3 세계국가들에서 이루어진 전도집회들이 막대한 돈을 뿌리며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진행된 전례가 많다 보니 당연히 떡고물을 노리는 자들이 생기기 마련이었죠. 악한 마귀는 항상 그 틈을 노리고 훼방을 일삼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집회들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항상 기도로 준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해오셨기 때문이지만요. 돌이켜보면 특히 아프리카

살바도르 집회를 위해 기도한 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더군다나 첫 방문입니다. 어찌 보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통과례이기도 합니다. 엘살바도르에 참 하나님의 사람을 가려 그들을 통해 엘살바도르를 복음의 옥토로 만드시려는 계획이라 믿습니다.

출발하며 기사를 작성하는 관계로 현지 사정을 현장감 있게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25년의 해외선교사역을 통한 경험에 비추어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엄청난 인원이 모여든 집회이든, 소수의 인원이 모였던 집회이든, 비바람이 치고 최악의 조건에서 진행된 집회이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로 보상해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주셨고, 새로운 지역으로 복음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다. 목사님의 뒤를 따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테니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까지 목사님과 통역관 이현숙 선교사를 위해 집중해서 기도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일행들이야 목사님을 보조하며 집회를 기록하는 일이지만, 목사님과 통역관은 직접 링 위에 올라 싸워야 하는 필드플레이어 아닙니까? 주의 성령께서 사로잡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그리하여 엘살바도르를 성령으로 뒤덮는 대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난사형통(難事亨通)의 역사가, 엘살바도르 건국 이래 보지 못했던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엘살바도르 집회

2025년 9월 2일~12일  
 집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3:8)



# 그날에 받을 면류관을 바라보고 함께 뛰자

“가렵니다 뵈세메스로/ 가렵니다 뵈세메스로/ 어린 송아지 울어도 가렵니다 뵈세메스로”

제가 작시한 찬양입니다.

저는 이 심정으로 엘살바도르 집회를 위해 떠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입니다. 엘살바도르는 여행이 불가할 만큼 정국이 불안정한 위험지구인데다가 집회를 준비하는 자들이 서로 물고 뜯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선교 일행은 우리가 기도한 것을 믿고 떠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고, 기도는 절대 부도난 적이 없음을 경험했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명(使命)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버려서라도 지켜야 할 주군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

‘모든 족속’이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행1:8)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려 하루 이상 꼬박 비행기를 타야 하는 지구 반대편까지 가는 겁니다. 사명에는 책임이 따르는 지라 이를 부도내면 문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고전9:16) 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제가 어디든 달려가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딤후4:7~8)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저도 그날의 받을 상과 면류관을 알기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보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상과 특권이 놓여있다는 말씀입니다.

###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어떻게 하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딤후4:2~5), 전도하면 면류

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전도’라는 것을요. 누가복음 15장에 아흔아홉 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애쓰는 주인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이웃과 친구를 불러 함께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눅15:7).

그러니 전도하는 자에게 주는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

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단12:3). 전도로 맺

은 영혼의 열매는 영원한 하늘의 면류관이 되니 전도에 더욱 매진해야겠지요.

저는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한 상에 앉아 열두 지파를 심판하고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는 소망이 있기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눅22:30). 그것이 없다면 뭣 하러 멀미가 날 정도로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빈대에 물리며 못 먹고 못 자면서 세계를 누비겠습니까? 백역, 천역을 쥐도 안 갑니다. 사람들이 대중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날에 받을 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깨씨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이면 기도요, 흠어지면 전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혹은 푹푹하고 많이 배운 자들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지만, 미련하고 연약하고 지혜롭지 못한 우리를 택하여 이 귀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상 받을 기회를 주시려고, 면류관을 주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기회를 주셨는데도 못 잡는 자는

어리석은 자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은 해외에 나가서 전도하시니 그런 큰 상을 기대하지만, 저희는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나가서 전하는 자나 기도로 후원하는 자나 물질로 돕는 자나 다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교 헌금을 두고, “이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빌4:18)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찌니 같

이 분배할 것이니라”(삼상30:24) 한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하게



총회장 이초석 목사

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전3:8).

화성탐사선 가는데 작은 부품도 같이 가듯, 제가 각국 대통령을 만날 때 우리 일행도 함께 가듯, 머리 가는 곳에 다리도 가고 팔도 가듯, 나가서 전하는 자나 나가서 전하는데 조력한 자나 똑같은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벼랑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건져내지 않는다면 그는 악한 자입니다. 후진하는 자동차 뒤에서 아이가 놀고 있다면 달려들어 건져내야 옳습니다. 세상 사람이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이를 막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찌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잠24:11~12).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 누가 알겠으며 누

가 믿겠습니까? “그러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10:14).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이르기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행1:11)고 합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24:14),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땅끝까지 전도해야 주님이 오실 길을 여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초림의 길을 열었다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땅끝’은 지역적인 것뿐 아니라 원수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북한에도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이 있기에 제가 마음껏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는 여러분을 자랑하고, 여러분은 저를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습니다. 적은 능력으로 큰일을 이뤘고, 핍박과 환난 중에도 꿋꿋하게 복음을 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계3:7~8). 그날에 교회대표상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예수중심교회가 받을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굴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내 사후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 주리라”(계22:12.)

우리, 받아놓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열심히 전도합시다(계3:11). 그날에 받을 면류관을 바라보고 함께 끝까지 뛰어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푼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빌3:13~14).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찬양과 경배 ::

# 한미 정상회담 (외형적 간소함 속 실질적 전환의 의미)

2025년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방미 일정에서, 양국의 협의 결과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래 가장 중대한 전환점을 도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의 통수권자는 미국의 통수권자에게 “귀국이 피스메이커(Peacemaker)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한국은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서 그 과정을 견인하겠습니다.”는 입장과 역할을 명확히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안이 아닌, 국가적 책임과 의지를 전제로 한 정책적 의사표시로 해석됩니다.

둘째, 이에 대해 미국의 통수권자는 미군이 주둔을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영구적으로 양도할 것을 한국 측에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부지가 내포하는 영토의 주권적 성격과 관련된 민감한 법적 사안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의 협력과 신뢰 구축이라는 더 큰 뜻을 담아 제안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은 제1기 재임 시절, 남북한 모두에게 중요한 이해당사국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제안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지난 2000년 동안 한민족과 51차례에 걸쳐 전쟁을 치렀다.”는 역사적 언급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는 한반도 상황이 단순한 남북

간의 관계를 넘어 복잡한 역사적·지정학적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요구하는 점유지에 대한 소유권이 미국으로 영구 귀속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타결될 경우,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미국 본토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보장 체계를 확보하게 될 것이며, 어떤 정권이라도 번복하지 못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 국민,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금전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내분만 심화시키는 통치권자나 정치인에 대한 소모적 비난과 조소를 즉시 중단하고, 국가적 안정을 위한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 수익성이 가장 높은 사업부나 계열사부터 양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단기적 손익을 넘어 장기적 생존과 회복을 위한 전략적 판단에 근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핵심에서 벗어나 우선순위를 모르고 내부적으로 좌충우돌한다면 구약에 기록된 다수의 실패한 왕들과 같이 후손에게 어려움을 전가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귀중한 기회까지 흘려 버리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윤석**

#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시는 하나님

올해도 어김 없이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친 이 수련회 뒤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신학생이면서 중고등부 교사인 저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본부 사무실 이전이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사용하던 사무실의 짐을 정리해서 차량에 싣고, 점심 식사를 한 후에는 새 사무실로 짐을 옮겨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에 갑자기 몸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이전까지 겪어보지 못한 두통이 더해져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먼저 귀가하겠다고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날 오전에 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짐을 옮기다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데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더운 날, 주를

위해 땀을 비 오듯 흘리는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니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몸을 가누며 마저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가운데도 몇 가지 다른 일들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미 한 번 마음을 지키고 나니 ‘하나님께서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풍성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25:14~29). 일이 끝나고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천국에 집이 참 크시겠어요. 놀라 갈게요.” 저는 ‘아멘’으로 크게 화답했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며 ‘왜 나한테만?’이라는 생각보다는 ‘나니까 더욱!’이라고 생각하면 같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넘치리라 생각합니다.

**윤예녹 생도**



:: 깊은 곳에서의 울림 ::

:: 생명의 말씀 ::

# 기도의 위력을 아십시오

중고등부 수련회 마지막 날,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저 〇〇이에요! 제 동생 좀 살려주세요!”

울음 섞인 목소리, 다급한 외침.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이 엄마랑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눈 위가 찢어져 피가 멈추질 않아요. 그런데 병원 응급실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자매의 동생은 지적장애 1급이었습니다. 동생이 119 이송을 거부하자 자매는 직접 차를 몰고 응급실을 돌았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상처 봉합은 움직임이 없어야 가능한데, 몸부림을 치면 의료사고 위험이 크다는 것. 결국 진정제나 전신마취가 필요하지만,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따르는 위험과 인력 부족 때문에 부담을 감당하려는 병원은 없었습니다.

자매는 제가 외과 의사 친척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는 급히 사촌 오빠에게 연락했지만, 병원 사정상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소개해준 다른 두 곳 역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피가 너무 많이 흘러요.”

“마지막으로 경북대학병원 응급실로 가보

세요. 여기서 함께 기도할게요!”

저는 스태프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통성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 제발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세요!’ 절박한 기도가 이어졌고, 시간이 흘러 자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방금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고 나왔어요! 처음에는 여기서도 어렵다고 했지만,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응급실 선생님이 외과 선생님을 불러주셨어요. 기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모든 문제를 푸는 ‘마스터키’입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하신 것도, 베드로를 옥에서 자유케 하신 것도, 모두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지금 가정에 어려움이 있나요? 사업이 막혀 답답하신가요? 관계의 갈등으로 지쳐 있나요? 걱정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기도도 하나님을 움직여 기적의 문을 활짝 엽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4:6). **김진실 사모**

# 진짜 복

조용하지만 거룩하고 기쁜 장례를 잘 마치고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해주셨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정말 잘하였다.”

그동안의 신앙 여정이 떠올라 감격스러웠고, 감사한 마음이 한 번에 밀려왔다.

소천하신 집사님은 연세가 많으셨고, 젊은 나이에 남편분과 사별하고 홀로 키운 병을 앓으며 혼자 살고 계신 분이였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오랜 인연으로 전도하셨고, 의정부에서 안양으로 이사하신 후 코로나로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계시는 때 다시 만나게 되었다. 나는 거동이 불편하신 집사님을 위해 매주 안양으로 모시러 갔다. 예배를 드리고 다시 택시에 모셔다드리며 복음을 전하고 신앙 이야기 나누며 맛있는 간식도 함께 먹곤 했다. 그렇게 2년 가까이 차량 운행을 하며 주일성수를 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 거주하시던 안양의 집이 임대 기간 만기가 되어 문산교회 바로 앞으로 이사하실 수 있도록 새로 집을 구해드리고 이사를 도와드렸다. 그러자 수요일에 와 주일예배에 참석하시고, 거동도 불편하시고 연세도 많으신 분이 걸어서 작정

기도회에도 나오셨다. 매일 기도 생활을 하니 몰라볼 정도로 밝아지셨고, 발걸음도 아주 가벼워지셨다. 총회장목사님의 기도원 집회에도 참석하셔서 큰 은혜를 받으셨다.

집사님은 문산교회 앞으로 이사 오셔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였고, 성도님들과도 기쁨으로 교제를 잘 나누시던 어느 날 갑자기 소소한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길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다. 집사님은 입원하여 소천하기 전까지 매일 기도하셨고 정말 이지 단아하고 깨끗한 삶을 사셨다.

나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고 생각한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 날보다 낫다(시 84:10)는 말씀처럼, 교회 가까이에서 매일 밤낮으로 기도하는 삶보다 귀하고 복된 삶이 있을까.

나에겐 꿈이 있다! ‘세계를 교구 삼고 말리라’는 꿈을 꾸신 총회장 목사님을 따라 항상 복음 전하는 일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그 집사님을 전도하신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삶에 전도 말고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장순천 목사**

:: 성경에서 배운다 ::

:: 신앙에세이 ::

# 작은 물고기라도

저는 어린 시절, 글 쓰는 것을 상상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는 독서를 즐기지도 않았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제 생각을 타인에게 전한다는 것은 꿈조차 꾸지 못했지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 성경이 궁금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전도를 위해 성경을 목상하며 이를 전하다보니 전달력도 향상되면서 청년시절 어느새 저는 잡지사 기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귀한 교회 신문에 기고도 하고,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기획안과 강의 자료를 작성하는데 '글'이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역량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 교회에 모이지 못하던 때에도 공동체의 결속을 지키고자 작은 마음으로 영상 편집을 배웠습니다. 각 가정의 목상 영상을 받아 편집하고, 이를 나누면서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는 듯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의 작은 시도가 지금은 제 업무와 신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제 삶의 핵심 역량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작은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인 큰 무리를 먹이실 때, 안드레는 "한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지만 너무 적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작은 것을 사용해 5천 명을 먹이셨지요.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는 평범한 막대기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홍해를 가르는 권능의 도구가 되었고,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소년 다윗의 물뿔은 이스라엘 역사를 바꾼 위대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르브과 부가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만큼 작은 양

의 밀가루와 기름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드리는 순간 온 가족을 살리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엄청난 물질이나 대단한 달란트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의 출발점은 오히려 거창하지 않았습니. 순종의 마음으로 드린 작은 것, 작은 물질, 작은 재능 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자신을 성장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되었던 것이지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다고 주저하지 마시. 작은 섬김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고, 자신을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용기 내어 내 손에 들린 작은 물고기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인명 집사**

# 그럴 법하게 보이지 않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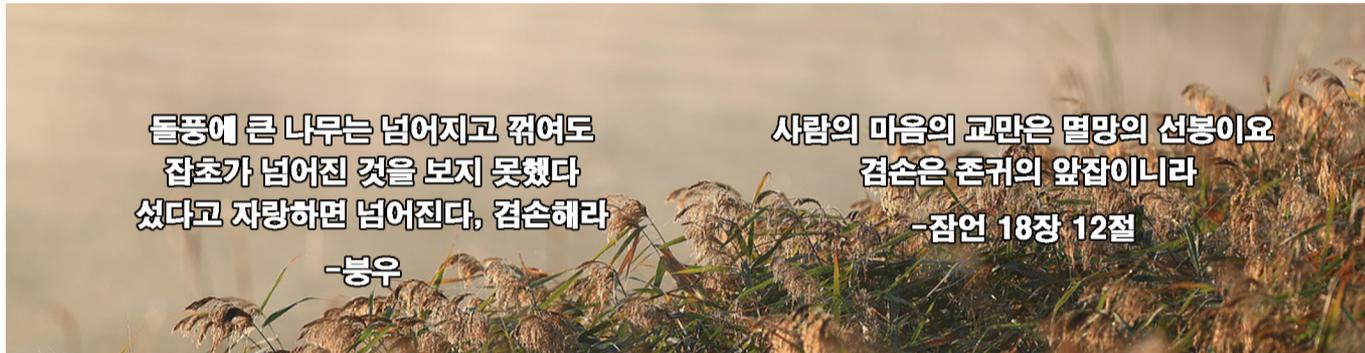
얼마 전 '킹 오브 킹스'라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았다. 애니메이션이었지만 예수님이 나오시는 매 장면마다 어찌나 울컥하던지. 예수님이 처음 나오시는 장면은 마구간에 서의 탄생이었다.

출산이 임박한 마리아와 함께 요셉은 호적을 위해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 도착 후 늦은 밤이 되었으나 여관마다 방은 없었고, 묵을 곳을 내어주는 사람도 없었다. 요셉이 하룻밤 묵을 방을 사정하나 매번 거절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분명히 천사를 통해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그 계시가 이루어지는 첫 시작이었지만, 정작 현실은 하룻밤 묵을 곳을 사정하는 상황이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 왕 중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많은 귀인들이 모여있고, 모든 것이 갖춰진 환경에서 멋있고 웅장한 탄생의 모습을 조금은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현실은 허름한 마구간이었고, 그곳엔 두 부부와 아이를 낳만한 가축 사료통, 곧 말구유만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꿈, 비전, 계시, 예언, 약속의 말씀은 눈에 그럴 듯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작고 초라한 시작일지라도 하나님은 천사들의 노래와 동방 박사들의 선물, 목자들의 증거를 보내셔서 위로와 힘과 확신을 주신다. 그렇기에 기대와 정반대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계속 전진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탄생하셨다. 세상의 눈에 현실이 그럴 법하게 보이지 않았어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눅 1:45). **박찬영 집사**  
cross35@hanmail.net



들중에 큰 나무는 넘어지고 꺾여도  
잡초가 넘어진 것을 보지 못했다  
섰다고 자랑하면 넘어진다, 겸손해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봉우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 더 늦기 전에

늘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을 용서하지 않은 채로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진심이라고 받아들이실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 그래서 그들이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먼저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용서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크게 기뻐했는데,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언제든 결단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의 대상이었기에 그와도 화해해야 했지만, 매우 어려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 용서를 구하지 못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 그는 사촌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아픈 가정이 있어 오랜 시간 동안 할머니 품에서 자랐습니.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 갈 때마다 그와 마주했는데, 다른 사촌 동생들과 함께 놀고 있으면 그가 장난감을 부수기도 하고, 간식을 먹고 있으면 그가 전부 움켜쥐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무엇을 하든 방해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촌 동생들을 대하는 것과 다르게 그를 받아주지 않고 차갑게 대하며 차별

했습니다. 그때는 그에게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저와 그는 철든 나이가 되었고, 어느 날 어머니께서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순간 지난날 그를 냉대했던 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 그 일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그가 오해하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 죄송하고, 그에게 더 미안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그에게도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와 마주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그가 결혼한 후에는 더욱 기회를 찾기 어려웠습니. 선물을 보내보기도 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 그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했다 때, 예수님을 믿는 저와의 일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그와 화목하게 되길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초보 운전자인 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로 형사재판 1심에서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탄원서를 정성스럽게 써서 보냈습니. 탄원서에는 불우했던 가정사로 힘겹게 자랐지만, 부모를 원망하거나 세상을 비판하지 않고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기까지 고단했던 그의 인생과 아픈 어머니까지 돌봐야 하는 안타까운 형편

을 전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재판장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빨리 회복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여 재판에서도 그가 선처되길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 그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습니. 제가 기도한 대로 그가 원하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면, 떨리는 목소리로 탄원서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가 탄원서를 읽고, 고단했던 인생을 살아온 쓸쓸한 마음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그 어떤 사과의 말보다 큰 감동과 위로를 받고 마음이 녹았던 모양입니다. 그 시절에는 헤아리지 못했던, 사랑과 관심을 갈구하던 어린 아이의 마음을 이제라도 보듬어주고 싶었던 저의 진심이 그에게 닿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축복하며 그가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는 오래도록 기억하지만, 남에게 준 상처에는 둔감하거나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원망을 들만한 일은 없나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찾아가서 화해하시고(마5:23-24), 잊었거나 내가 모르는 일은 없는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명관**  
v-777@naver.com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노랑진 교육관 기도회**

장소: 노랑진 드림스퀘어 D동 3층  
저녁 8시 (월, 화, 목, 토)  
문의: 02.533.9191